

下心·무소유의 삶... 한국불교 큰스승

11월 22일 원적 덕암 대종사 행장

열반게

오관법계본무성(吾觀法界本無性)

내가 법계를 살피니 본래 성품이 없으며

생사열반역무상(生死涅槃亦無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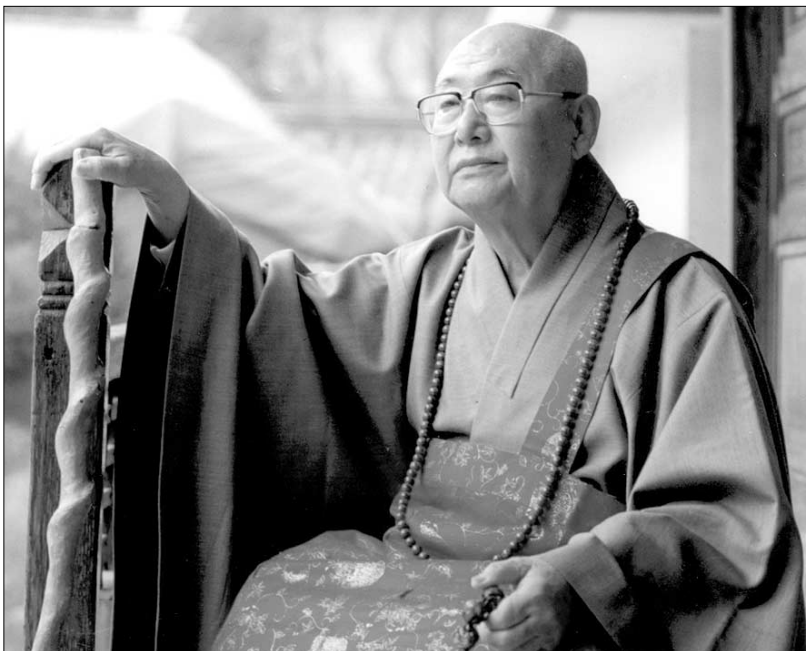
생사와 열반 또한 모양이 없도다.

약인문아거래처(若人問我去來處)

누군가 만약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고 묻는다면

운산홍일조서천(雲散紅日照西天)

구름 흩어져 붉은 해 서쪽 하늘을 비춘다 하리라.



◇하심하는 생활을 실천했던 덕암 스님은 한국불교의 큰스승이었다.

11월 22일 원적에 든 덕암 대종사는 청정수행과 대중교화의 삶을 살아온 종문(宗門)의 큰스승이요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뿐만 아니라 천진한 어린아이 같은 성품과 보살행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화를 불러일으키는 보살로 추앙 받았다. 이런 스님의 모습을 도올 김용옥 중앙대 석좌 교수는 "한평생 한결같이 어린이 마음 잃지 않았더라. 진제와 속제가 틀 아니려나, 바로 이 사람두고 한 말이라니(平生不失嬰兒心 眞俗非二 就是人)"라는 만장일치를 표현했다.

일제강점시대였던 1930년 유점사로 출가한 덕암 스님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교가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면서 일본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35년 일본 대성종교회를 졸업하고 귀국, 철원 심원사에서 불교전문강원을 수료했다. 이후 조계산 송광사 삼일암, 선암사 칠전선원 등 전국 제방의 선원에서 참선 수행에 매진했다.

선암사 칠전선원 수선안거 중이던 44년 뜰에 핀 꽃을 보고 흥연히 대오견성했다. "꿈에서 깡깡 깨어 보니 티끌속에 시방세계 있구나. 꽃은 풀안에 피어서 웃고 새들은 창밖에서 노래하네(警覺一夢中 一徹十方 花開庭中笑 群鳥啼窓外)"는 당시 읊었던 오도송이다.

해방 이후 비구-대처승간 분규 때에는 동국학원 감사, 태고종의 전신인 불교조계종 교무부장, 월간 <현대불교> 편집위원 등을 지냈고, 통합종단이 출범한 이후 조계종 교무부장, 종정 사서,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불교계가 다시 분규에 휘말리자 승단화합을 위해 온 몸을 헌신했으며, 태고보우국사로부터 내려오는 한국불교의 법통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일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비구입에도 불구하고 태고종을 창종했던 뜻도 여기에 있었다.

태고종을 세운 후에는 총무원장, 총무총장, 종승위원장, 교육원장, 선암사 방장, 법륜사 조실 등을 역임하며 대승교화 종단으로서의 기틀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깊은 수행력으로 종도들로부터 존경 받아 왔다. 86-93년 태고종 제13세 종정을 지냈고, 98년 제16세 종정으로 재추대되어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륜사에서 주석해 왔다.

덕암 스님은 하심(下心)하는 생활을 삶의 철칙으로 삼고 평생을 화두로 삼아 실천했다. 손상좌격의 나이 어린 스님이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더라도 반드시 참석해 경청했고, 누구에게도 대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철저한 지계와 선교겸수를 가르쳤다. "계가 없으면 선도 있을 수 없고 교도 있을



◇덕암 스님의 영결식이 11월 26일 서울 봉원사에서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빈한 삶을 몸소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법문을 할 때면 "세상에 나올 때 한 물건도 가지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 또한 빈손으로 가나니 잠깐 한 물건도 가지고 갈수 없거든 욕심부터 내몸에 얽만 뒤따르네.(生來無一物 去亦空手去 萬般將不去 唯有業隨身) 욕망과 집착을 버리면 밝은 천하를 얻을 것이요 능이 이를 행하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總着心具足 可得明天下 如是能行者 不滅永生也)"라는 가르침을 빠뜨리지 않을 정도였다.

98년 IMF 체제로 국민들이 노숙자로 내몰리자 그들에게 공양을 대접하며 한끼 식사만으로 수행을 이어오는 등 수많은 덕화를 베풀었다. 평생의 덕화가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ews.com

buddhanews.com에 입적기사 종합

최근 청화, 정대, 덕암 등 한국불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던 스님들이 계속해 입적하면서 대비와 사리, 호칭과 관련해 궁금해 하는 불자들이 많다. 대비는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사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호칭은 어떤 기준에 의해 사용되는지 등을 정리했다.

대비·사리·호칭에 대한 궁금증

●대비= 대비는 불교의 화장의식이다. 조계종의 경우 스님이 입적하면 누구나 대비를 하는 게 관례다. 대비를 하는데 법랍이나 법계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다비장이나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기는 마찬가지며, 중요한 것은 입적한 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재가자도 사찰의 대비장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월운 스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일은 아니다. 그렇지

도 그렇게 생각할만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입적한 서암 스님은 입적하기 전 "사리를 수습하지 말라"고 했고, 근세 10대 고승 중의 한 명인 전강 스님도 "내 몸에서 사리를 내지 말라"고 말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어디서든 이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거나 쓰거나 이경이 있는 곳에는 사리를 봉안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는 이미 여러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다'는 말이 있다. 진정한 사리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이다.

불교화장의식, 법랍·법계 문제 안돼

다비 사리

많고 적음으로 입적스님 평가 잘못

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사리= 정대 스님 장의위원회는 최근 정대스님 대비 후 120과의 사리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사리가 나왔는지, 나왔다면 어느 정도 나왔는지와 관련 중요한 일일까.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은 보통 대비가 끝나면 사리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관심을 가진다. 사리의 많고 적음으로 입적한 스님을 평가하는 풍토가 어느덧 보편화 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경전 어디에

●호칭= 입적한 스님에게 '대선사' '대종사' 등 다른 호칭을 붙이는 것은 법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행장에 맞는 일반적 호칭을 사용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대종사는 스님의 최고 법계이고, 대선사는 오래토록 선 수행을 한 스님을 칭하는 존칭이다. 조계종의 경우 법랍이나 수행정도 등을 통해 법계를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입적한 스님의 법호 뒤에 어떤 호칭을 붙이느냐는 문도나 장의위원회 등이 논의해 결정한다. 한명우 기자

불교계·정 관계 대표 등 스님 원적 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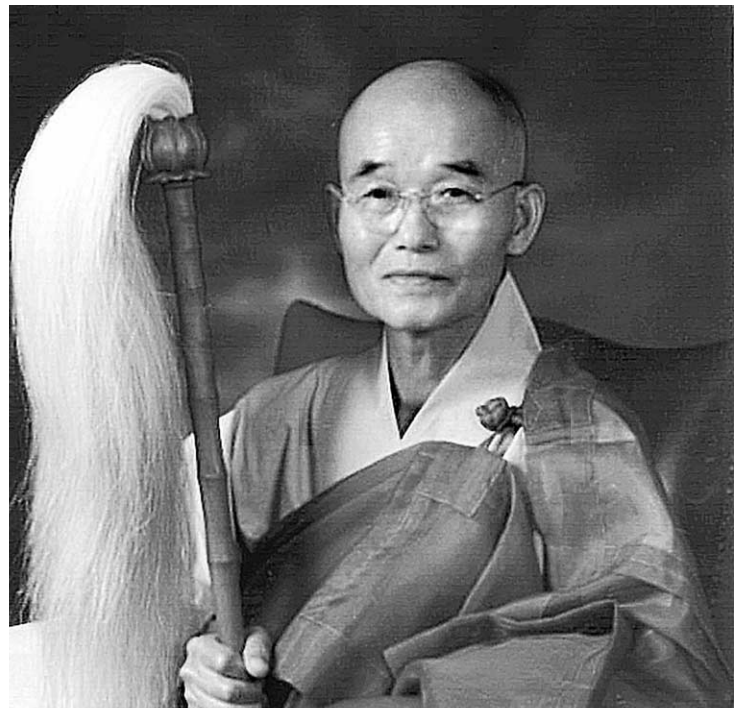
덕암스님 가시던 날

덕암 스님의 영결식이 열린 1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봉원사에는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려는 사부대중이 몰려들었다. 식의 시작을 알리는 명종 소리에 오색 만장이 휘날리는 도량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 불교의 진정한 큰스승 덕암 큰스님을 떠나 보내는 마음이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묵 메인 영결사가 도량에 퍼지는 순간 덕암 스님을 보내는 서글픔에는 출기도, 재기도 없었다. 영결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등 불교계 대표 30여명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김원기 열린우리당 상임의장 등 정·관계 대표 30여명 등도 덕암 스님의 원

적 애도했다. 생자(生者)는 필멸(必滅)이요 회자(會者)는 정리(定離)다.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하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정한 이치인 줄을 어찌 모를 것인가. 그러나 3천여 사부대중은 영결식이 끝난 뒤 대비를 위해 선암사로 이운되는 스님의 법구를 따라나섰다. 스님의 운구 행렬은 오후 5시 30분 선암사에 도착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천여 대중이 덕암 스님의 법구를 맞이 했다. 대비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운호계와 도량계 등의 의식에 이어 거화가 시작됐다. "큰스님 빨리 나오세요"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무리 속에서 울부짖는 듯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대비장을 가득 메운 대중들은 '나무 아이티발'을 염송하며 다음날 오전 10시 불이 완전히 사그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박봉영·김두식 기자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법회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주기를 맞이하여 법보종찰 해인총림에서 법전 중정예하를 모시고 추모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문도 및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47(2003)년 12월 10일(수요일) (음 11월 17일) 오전 11시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큰법당)
■문의처 : 해인사 총무소 ☎ 055-931-1001~2
원 당 암 ☎ 055-932-7308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증 명 : 종정 법 전
봉행위원장 : 주지 세 민
문도 대표 : 성 범